

세계수학자대회(ICM)

1백1개국서 4천여명 참가

● 일자 : 2002년 8월 20일~28일 ● 장소 : 중국 베이징

세계수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가 2002년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세계수학자대회는 1897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최초로 열린 이후 매 4년마다 열리는데 수학 분야 행사로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컨퍼런스이다. 이번 대회에도 세계 1백1개국에서 4천2백70명의 수학자들이 참석했고, 총 20개의 plenary lecture와 1백74개의 초청강연을 통해 수학 분야에서의 최근 성과와 커다란 업적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세계수학자대회의 중요한 행사중의 하나인 필즈메달(The Fields Medal) 수여식도 거행되었다.

인민궁전서 개막식

올해의 필즈메달은 Institut des Hautes Etudes Scientifiques (IHES) 소속의 프랑스 수학자 Laurent Lafforgue 교수와 미국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n Princeton 소속의 러시아인 수학자 Vladimir Voevodsky 교수에게 안겨졌다. 필즈메달은 수학의 노벨상이며, 1931년 처음으로 상의 제정을 결정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캐나다 수학자 John Charles Fields(1863~1932년)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공



ICM 2002 개회식 - 중국 인민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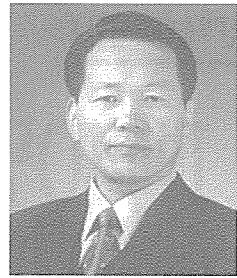
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 중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자에게 4년마다 한번씩 수여되는 것이 전통이다. 올해의 수상자들은 모두 36세였다. 필즈메달과 더불어 컴퓨터 수학 분야의 최고 학자에게는 네반리나상(The Nevanlinna Prize)이 매 4년마다 역시 세계수학자 대회에서 수여되는데 올해에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의 Madhu Sudan 교수가 수상했다. 중국 장쩌민주석이 개회식에 참여하여 필즈메달을 수여했다.

중국에서 인상적인 것은 수학자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느낀 점이다. 세계수학자대회의 개회식이 베이징의 소위 최고의 건물인 인민궁전(The Great Hall of the People)에서 열렸는데 그 장소를 사용한 것도 예외적인 대우이지만 중국 최고의 지도자인 장

쩌민주석이 직접 나와서 필즈메달을 수여한 점도 수학자들의 위치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베이징의 세계수학자대회에 앞서 8월 17~19일에는 상하이에서 세계수학연맹(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의 총회가 열렸었는데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최상급으로 보였다.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움직일 때는 전세 비행기를 대여하여 모든 총회 참석자들을 수송하기도 하였다. 북경대학의 수학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경대학에서 가장 최신 건물 한동을 수학과가 전부 사용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나라에서 학부제한답시고 수학과를 통폐합 대상의 제1호로 대우하는 것과 비교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세계수학자대회라 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각 국가 수학회 대표들이 모여 안건을 처리하는 2~3일간의 세계수학연맹 총회와 참석한 모든 수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수학자대회 개회식과 8~9일간의 논문발표 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총회에는 현 대한 수학회 회장단 2명이 정식 대의원으로 참석했고, 대회 자체에는 1백여명의 한국 수학자들이 참여했다. 세계수학자대회는 전 세계 수학 분야 연구의 최신경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다 가까운 중국에서 열려 이번에는 다

지난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는 1백1개국에서 4천여명이, 우리나라에서도 1백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중국 최고 건물인 인민궁전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수학연맹총회와 세계 수학자대회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趙容承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큰 대회 때보다 많은 한국 수학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북한도 그 동안 경제사정 때문인지 이런 세계수학자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었으나 중국이라는 상황 때문인지 10명 정도 참여하였다. 총회의 주요 안건은 차기 세계수학연맹의 회장과 임원진의 선출과 예산 결산 및 사업 보고가 주요 내용이었다. 현 회장은 브라질 출신의 Jacob Palis 교수인데 차기 회장으로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John Ball교수가 선출되었다. 가장 큰 사업은 세계수학자대회 개최 문제이다. 올해에는 인도,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이 차기 개최지를 놓고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2006년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차기대회는 스페인서

이번 수학회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

을 끈 행사중의 하나는 프린스턴대학 수학과 교수 John Nash의 강연이었다. 그는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로 세인에게는 아카데미상을 받아 유명한 영화 "A Beautiful Mind"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게임이론에 관하여 강연을 하였는데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이 꽂다발을 주려 하였으나 어쩐지 뒤돌아서며 받지 않아 그의 아내가 대신 받는 일화도 있었다.

세계수학연맹은 회원국 각 나라를 수학의 수준, 능력, 그리고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5등급에 속한 국가에는 5명의 선거권이 주어지고 2등급 국가에는 2명의 선거권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총회 대의원을 초청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2등급이고 중국은 미국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학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중국 본토는 3등급, 대만 2등급, 그리고 홍콩은 1등급이다. 우리 대한수학회도 승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대의원 수가 많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국제행사가 열리면 해당 국가의 수학자들과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유명한 수학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더 많은 영감을 받고 또한 수학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2002 필즈메달과 네반리나상 수여식

이번 행사에서 중국 대학생들(특히 북경대학, 푸단대학, 청화대학)의 자원봉사 활동이 눈부셨다. 그들은 공항에서부터 대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선진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중국 곳곳에 보였다. 그들은 문화와 전통의 소개에도 신경을 써서 수많은 투어 패키지를 마련하여 제공하였고, 다양한 전통 공연과 연주에도 모두를 초청하여 관람토록 배려하였다. 이처럼 선진국이거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애쓰는 나라들은 국가 장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이 가능한 빨리 왔으면 싶었다. 우리나라의 수학자가 대접받고 사회가 수학전공 학생들을 우대하는 시기가 바로 그 때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ST



ICM 2002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는 장재민주석